

'현우경' 이야기 (15)

금천과 금광명 부부

동전 한 닢, 물 한 병, 거울을 보시한 공덕

수라바스티에 한 부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온 몸에서 금빛이 났다. 부자는 아들의 모습을 기이하게 여겨 '금천'이라 이름 지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금천이 태어나던 날 집안에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다.

그 우물의 물을 길어다 쓰면 신기하게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됐다. 옷이 필요하면 물이 옷으로 변했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으로 변했다. 부자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무한한 복을 갖고 태어났다. 장차 아이가 크면 꼭 이와 같은 여인을 골라 혼인을 시켜줘야겠다.'

시간이 흘러 금천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 부자는 사람들에게 일러 나라 안의 좋은 규수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그때 옆 나라 엽바국에는 금광명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그녀는 외모가 수려하고 온 몸에 금

빛이 났다. 그녀가 태어나던 날도 금천과 마찬가지로 집안에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고, 그 우물의 물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해줬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곧장 금광명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고 금광명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과 혼례를 올릴 것을 청했다. 금광명의 아버지 역시 금천의 소문을 들은 터에 바로 혼례를 허락했다.

금천과 금광명은 수라바스티에서 혼례를 올렸다. 금천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고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은 공양을 마치고 금천과 금광명을 위해 법문을 설하셨다.

부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부부는 며칠이 지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간청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삽화·강병호

부모들은 부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출가를 허락했다. 부부는 그 길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며 출가를 허락했다. 금천은 다른 비구들과 함께 생활했고, 금광명은 부처님의 이모로 최초의 비구니가 된 대애도에게 맡겨졌다. 둘은 시간이 흘러 모두 아라한이 됐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

었다.

"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지금의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먼 옛날 비파사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비구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법을 펼치고 있었다. 그때 스님들은 어느 작은 마을에 들러 며칠을 묵게 됐다. 부자들

은 스님들에게 서로 앞 다퉈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한 남자가 생각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창고에 곡식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쌀 한 톨도 가진 것이 없으니 스님들을 만나 봐도 공양을 올릴 것이 없구나..."

남편의 근심어린 모습에 걱정된 아내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겁니까?"

"스님들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양을 올릴 쌀 한 톨도 없구려. 공양을 올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으니 괴로워서 그렇소."

아내가 말했다.

"지금 창고를 다시 한 번 뒤져 보세요. 혹시 그곳에 공양으로 올릴 수 있는 무언가

가 있지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창고 구석에 동전 한 닢이 떨어져 있었다. 부부는 동전 한 닢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 부부는 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동전을 넣고, 병 속에 거울을 세워줬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달려가 정성스럽게 그 물을 공양으로 올렸다.

스님들은 그 물을 받아 바루를 씻은 뒤, 물을 마셨다. 부부는 평생 동안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다 생을 마쳤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물을 보시한 부부가 금천과 금광명 이니라. 전생에 돈과 물과 거울을 보시해, 날 때마다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온 몸에 금빛이 난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 불법을 믿고 따랐기에 지금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아주 조금만 복을 지더라도, 복을 짓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것과 같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